

목
 록

1주차 1.....	1
1주차 2.....	2
1주차 3.....	3

"이제 봄이 왔나봄"

황량한 겨울을 이겨낸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당당한 봄 기운이 학우들에게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개강예배에서 느낀 공감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려 합니다.

앞으로의 공소(공감과 소통)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던 일이 덮칠 것이요,
의인은 바라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What 보다는 How"

부모님께 항상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었다.
공부 잘하는 아들보다 건강하고 착한 아들이
더 좋다고 말씀해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며 항상 의구심을 품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별난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은 내 자신에게 용기가 생겼다.

목회철학:1)십자가의 행복, 2)눈물로 씨 뿌리기
3)매사에 진심으로 행하자, 4)하나님께 먼저 말하자
→무엇인지 뿌리는 대로 거둔다.(이치)

실패를 뛰어넘는 용기와 발판이 있어야 성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과정 중에
있다. 성공하는 원인과 결과, 실패할 수도
있는 원인과 결과들을 기회 삼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과정 등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준비해야 한다.

요즘 고달프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친 채 살아간다 느꼈습니다.
찬송가 513장을 부르며 울컥하였습니다.

감사함을 평소에 많이 하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요즘 충만함을 못 느꼈다가 개강예배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법과 정직함을 지키면 바보다?"라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과 전신호 목사님이 목회철학 4가지로
뒀든 원인이 있고, 뿌린대로 거둔다는 뜻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도 눈물의 씨를 뿌리고, 매사 진심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아무리 올곧고 긍정적인 사람이어도,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모두 해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목사님 말씀 중,
"진실은 결국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문구가 답변이 되는 것 같다.
허상을 쫓지 않고, 내가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여,
늘 진심으로 진실된 행동을 하려 노력한다면,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의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아무리 불공평한 사회라 생각해도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말씀처럼 '매사에 진심으로 행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얻을 거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또한 목사님의 말 중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를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서 씨를 뿌려 성공을 얻으라는 뜻으로 들려
너무 영감 받고 이번 일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원수가 와서 밀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삶의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 또한 이번 학기 부학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만한 결과가, 의인에게는 바라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회의감이 들었다. 하지만 악하게 잘 살 수 있는 철판은 없고
양심을 거스르는 삶이 안 맞아서 더 믿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뿌린대로 거둘 수 있다면 좋겠다.
인생에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들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욕심 때문이었는지 궁금해졌다.

24.03.04 개강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오늘 처음으로 개강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무언가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신호 목사의 목회철학 중에 4가지가 있는데

1. 십자가의 행복을 누리자, 2. 눈물로 씨를 뿌리자
3. 매사에 진심으로 행하자, 4. 하나님께 먼저 말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와닿는게 3. 매사에 진심으로 행하자이다.

그 이유는 인생에서 일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에
열심히 노력하며 진심으로 행하자라는 말이 생각과 같다고 느낀다.
듣다보면 목사의 말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4.03.04 개강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악인에게는 그 두려운 일이 덮칠 것이요.
의인은 그 바라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가라지와 알곡, 바보 농부 이야기.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무엇이 되는지 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
처음 들어보는 예배는 내 생각과 달랐다.
성경 읽고 찬송가만 부를 줄 알았다!
실제 사례도 포함해서 말해주셨다.

24.03.04 개강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전신호 목사의 목회철학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 1)십자가의 행복을 누리자
- 2)눈물로 씨를 뿌리자
- 3)매사에 진심으로 행하자!!
- 4)하나님께 먼저 말하자

하나님께서서는 제 응답에 항상 응해주십니다. 평소에도
기도를 드리지만 학교에서 기도를 드린 적이 처음이라
새롭고 행복했습니다. 이 기도를 학우님과 함께 드리게 되어
좋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아 기쁩니다.

24.03.04 개강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오늘 말씀 본문처럼
본인의 마음가짐대로 이루어진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즉, 뿌린대로 거둔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과에 집착한다.
결과가 좋지 않은 때는 과정을 돌아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어떻게 사느냐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